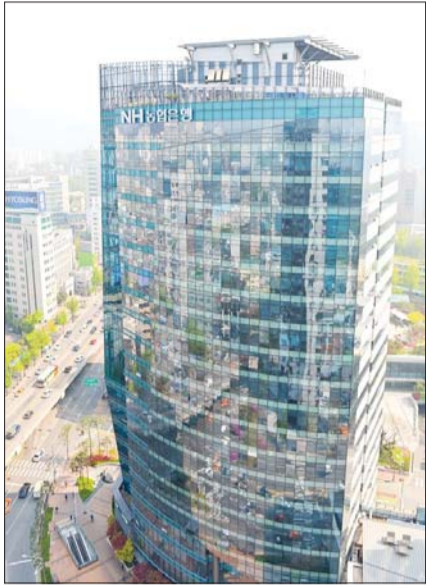


1년째 낙동강 오리알 ‘시리즈펀드’... 피해자 없고 규정 모호

증권위서 NH농협은행 제재결정 보류 판매 끝난 후 미래에셋방지법 시행 투자자 손실없고 행정당국 지도 불명확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일명 ‘시리즈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결정이 다시 한 번 미뤄졌다. 현행법상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이 무리한 제재에 나서면서 1년째 결론이 나질 않고 있다. 시리즈펀드는 사실상의 공모펀드를 공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나눠서 판매했던 것을 말한다.

금융권은 해당 상품인 NH농협은행의 사모펀드들은 공모회피방지법(미래에셋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했던 만큼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처벌규정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는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험등급 5등급의 채권형펀드인 데다

고객 손실도 없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공모펀드 규

제 위반(시리즈펀드에 따른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농협은행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산표부착(OEM)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고, 이를 사모펀드 시리즈 형식으로 판매했다.

증권위는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결정을 내렸지만 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했다.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시리즈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논의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미 금융위 산하자문기구인 법령해

석심의위원회와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는 현행법상 판매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총 10명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위원장 직할 자문기구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다. 지금까지 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재 근거인 미래에셋방지법 역시 농협은행의 판매가 모두 끝난 이후인 2018년 5월에 시행됐다.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장(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농협은행의 펀드들은 투자자 손실이 없었고, 관련 법규와 행정당국의 사전지도가 명확하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리하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법률 불소급 및 확대해석 금지원칙에 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급적용은 물론 미래에셋방지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행 규정이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돼 증권 발행인과 펀드판매회사 등에게 지나친 불확실성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김연미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세미나에서 통해 “금융시장 규제의 핵심은 공시규제이지만 공시규제로 인한 비용이 그로 인한 편익에 비해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자본시장 이용이 차단된다”며 “(미래에셋방지법이 모체로 삼았던) 미국 증권위원회 증권법규정(SEC Rule)은 선의의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박종복 SC제일은행장(왼쪽 세번째)이 운영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 두번째),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이사(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SC제일은행

SC제일銀, 코로나 위기 소셜벤처에 6억 기탁

SC제일은행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소셜벤처의 코로나19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6억 원의 지정기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포괄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 해외 본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성한 글로벌 자선기금을 한국에 배정받아 진행한다. SC그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수요가 급증한 상품 생산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10억 달러를 금융 지원하고, 피해가 큰 지역긴급 구호 및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5000만 달러의 자선기금을 조성한다.

이에 따른 국내 지원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기여한 소셜벤처를 선정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손보-현대차-기아차 커넥티드 車보험 특별약관 출시

KB손해보험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제휴해 UBI보험(운전습관연계보험·Usage-Based Insurance)의 일종인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커넥티드카서비스란 자동차의 내외부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양방향으로 연결돼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성을 돕고 실시간 길 안내, AI(인공지능)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차의 블루링크서비스, 기아차의 UVO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김희주 기자



이번에 출시된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품에 한해 오는 25일자로 보험시기가 도래하는 차량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의료진 덕분에’ 동양생명, 응원챌린지 동참

뤼젠롱 사장 비롯 임직원 50여명 참여 공식 SNS와 사내서 동시 진행 예정

동양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한 국민 참여형 응원 릴레이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중로본사에서 뤼젠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동양생명 공식 SNS와 사내에서도 동시 진행



뤼젠롱 동양생명 대표(가운데)가 김수봉 부사장(왼쪽 첫번째), 김현전 부사장 등 임직원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에 참여해 수어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동양생명

행될 예정이다.

뤼젠롱 동양생명 대표는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동양생명은 방역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고객서비스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와 보험보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에 대해 임직원과 설계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주 기자 hj89@

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경제 부담 우려

>> 1면 ‘나라빚·가계빚 급증’서 계속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6%,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5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 1인당 국가채무도 증가...가계빚 어쩌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1일 15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88만1665원에 달했다.

국가채무시계대로 늘어난다면 올해는 1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시계는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전

망 815조5000억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7만8100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국가채무가 850조원까지 치솟을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원으로 계산된다.

1인당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은 1610조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가계빚이 빨리 늘고 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자금순환표 기준 98.2%를 나타내 전년 동기 96.6%보다 상승했다. /김희주 기자

NH농협銀 챌린지플러스 선발 축하행사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농협은행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NH디지털 챌린지플러스(Challenge+)’ 3기 선발을 축하하는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3기에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갖춘 35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오는 10월까지 6개월 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선발 기업에게 입주공간 지원, 스타트업 경영진단, 산업분야 및 기술관련 전문 교육,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 투자 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기회 제공, 범농협 사업연계, 투자유치 참여기회(데모데이, 인베스터데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